

이유 있는 고집

한소정

고등학교때부터 건축, 그 중에서도 건축공학과를 가겠다는 뜻이 있었다. 그래서 이과를 지원해 주지 않는 외고에서도, 건축공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혼자 이과 수능 준비를 해 나갔고, 당연히 여섯 개의 수시 원서도 건축공학과로 넣었으며, 한 번의 수능 실패 후 재수로 정시 원서를 쓸 때도 건축공학과에 지원했다. 건설은 여자가 하기도 힘들고, 해외 현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며, 경기도 많이 타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전공 공부를 하면서도 줄곧 흥미를 느꼈으며, 혹여나 취업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듣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넘겼다. 좋은 면만 취사선택하여 수용하며 내 결정을 합리화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탈건'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은 탓일까, 이내 흔들릴 대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고학년이 되고 취업 준비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학교 수업시간에 건설 현장을 견학하고 그 속의 삶을 상상해보면서, 또 교수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이내 기계공학과로의 도피를 생각했다. 건축공학과에 대한 미련은 남았기에 복수전공을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각종 역학시험에 휩싸여 지난 학기를 보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미련으로, 예전부터 선배들에게 들어서 인상깊게 봐 둔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를 듣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내가 원하던 답이 조금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말이다.

이 아카데미를 수강하며 '내가 이렇게 건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 이론과 실체는 정말 다르더라. 실제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건축'이라는 분야를 우리보다 훨씬 넓은 범위까지 포함시켜서 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축공학과와 관련해서는 '구조 시공 CM(감리) 친환경'이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 전부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애초부터 CM과 건설감리도 다른 개념일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으로 대두되고 있는 드론, IOT, VR기술 등 학교에서 전혀 배우지 않았던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건축을 제대로 배워보지도 않았으면서 포기하나 마나 고민했던 내 자신이 우스워지는 꼴이었다.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대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 그것들을 해결하는 CM의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 견학을 다니면서 배움은 더더욱 구체화되었다. 학교에서 가는 현장견학에서는 아파트 짓는 것만 봐서 아쉬웠었는데, 건설리더아카데미에서의 현장견학으로 그 욕구를 풀었다. 초고층 건물, 물류창고, 주상복합 문화공간 건설현장에 가서 소장님들에게 공법 및 공사개요에 관하여 생생한 설명을 들었다. 사람들의 소비형태가 대형마트에서 스마트폰 장보기로 변화하면서 건축 또한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4차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말이 특히 인상깊었다.

따라서 PC공법이 대두되고, 내부 물품분류 자동화시스템의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현재 건축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 특히 의미 있고 재미있었다. 돌아오면서 솔직히 피곤했지만 오늘 하루는 제대로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종 소양 교양 특강들은 이 아카데미의 의미를 고취시켰다. 이미 사회에 진출해서 각 분야에서 자리를 잡으신 인생 선배들을 눈앞에서 보니, 진짜 열심히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며 자극되었다. 단순히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사님들이 인생에서 겪은 경험들을 풀어주며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 참 값졌다. 좋은 책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권 읽은 기분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차세대 건설리더를 들으면서, 나는 이제야 비로소 '저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10년 전 멋모르고 덤비던 그 때보다는, 건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태산이지만, 궁금한 것이 더 많아진 만큼 이제 어떤 부분을 알아야 할지 조금 방향성이 잡혔기에 두렵지 않다. 의식주(衣食住)중에 하나인 건축은 인간의 삶과 참 닮았기에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있고 굴곡이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로써 '건축쟁이'로 살기로 다짐한 이상, 이제는 건축을 하겠다는 '이유 있는 고집'을 지켜낼 것이다.